

산상보훈 -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여덟 가지 복

성경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 기록된 부분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5:1-2)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산상보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르쳐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때 제자들이 나아왔으며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은 앉았고 학생들은 서서 배웠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날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진리의 전령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 복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땅의 사람들이 아닌 하늘나라의 자녀로 묘사합니다. 또 나중에는 실제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5:3)

산상보훈에서 “복이 있나니”의 본래 의미는 “오, 행복하여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 행복하여라”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행복한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근래에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은 심령에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번역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매우 악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난 자체가 기쁨이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교만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또 심령의 가난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예외없이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거나 건방지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영광중에 거하시느 주를 뵈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라고 한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모든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를 뵈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교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비교할 때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정결함, 거룩함, 의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사람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게 되는 그 순간 ‘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소서’라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회개의 진정한 출발점,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5:4)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게 되면, 즉 심령의 가난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스스로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무력감 속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5:5)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세상은 저돌적인 사람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논한다면 성경에 쓰여진 내용과 정반대 되는 인간의 성품이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특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덕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때의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의와 진정한 평화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25:34)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6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까지의 세 가지 덕목이 다소 소극적인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네번째 덕목부터는 적극적인 특성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율법이 선한 것, 즉 이상론을 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오호라 나는 끈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말했습니다(롬 :20-24). 이것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써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을 깨닫는 자, 즉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5:7)

본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공홀을 입은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홀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집어 ‘공홀히 여겨서 남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결국 자신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5:8-9)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절부터는 이러한 덕목들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는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배척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5:11-12)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관련된 이러한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을 속이고 짓밟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핍박당하는 이유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괴상한 일 때문에 경멸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LA에 있는 성경대학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여학생 한 명이 저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매우 시끄럽게 떠들며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발끝까지 덮는 검정색 옷을 입고 화장은 전혀 안 했는데 전에 오페라 가수였기 때문인지 어딜 가든 큰 소리로 웃고 말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종종 비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때때로 그 여학생은 시내로 들어가는 전차를 탔었는데, 그때마다 저와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특유의 큰 목소리로 “형제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고 옷차림도 괴상했기 때문에 전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녀에게 “전차 안에서 그런 큰 소리로 권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상한 행동으로, 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례함으로 핍박받는 것을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의를 추구하므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닥치는 핍박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이 핍박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과 비방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성품은 비방과 핍박을 당하면 슬퍼하거나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만나 고쳐줍니다. 이 일로 두 사도는 심문을 받고 두 차례나 감옥에 갇힙니다. 심문하던 자들은 이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보다 앞서 핍박당하였던 선지자들의 무리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공회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들이 들먹거리는 그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예언되었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스테반의 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핍박한 하나님의 모든 진실한 선지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접받으며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말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러한 말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5:13a)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냉동저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을 고기는 소금에 진하게 절여서 보관하였습니다. 소금은 육류의 표면에 붙은 세균을 죽임으로써 부패를 방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의미는 “너희는 세상을 부패로부터 방지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그 사회를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가 강하게 주장되는 사회는 건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 역시 쇠퇴해질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을 예로 들면, 초창기 나라를 건설할 때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의해 기초가 닦였습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그 영향력도 약해져서 이제는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음란퇴폐물이 버젓이 제작되어 판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 중에 LA경찰서에서 어린이 착취에 관해 책임자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 음란물 제작소를 수색할 때마다 그곳에는 엄청난 분량의 사단 숭배의 글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사건의 장소에서도 종종 사단 숭배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변태적 사고를 갖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원천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싸움에 적절히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육적인 무기를 쓰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며, 영적인 부흥을 다시 촉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며 우리의 대적이 되는 저들의 배후에는 본질적으로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5:13a)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인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쓸모없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오래되어 그 짠 맛을 잃게 되면 길거리에 버려져 잡초를 죽게 하는 제초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최후통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5:14a)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으로 그들은 어부였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천한 배경을 지닌 하류 인생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곳은 갈릴리 지방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어느 외딴 산 언덕 위에 용기종기 모여 앉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5:14b- 15)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뚝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어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진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5:16)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신적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누구나 알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영웅이 되는 것은 이름없이 수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 애씁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고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빛으로 인한 영광이 우리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5:17)

율법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기초가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5:18-19)

여기서 일점 일획이란 히브리 글자의 모음기호와 같은 아주 작은 표시들을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22:37-39).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요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롬 13:10). 율법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명령, 즉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5:19-20)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를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옷에까지 말씀을 쓴 옷술을 크게 하여 달고

다했으며 기도중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보인다든지 하여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께서 “소경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했다는 것은 피 채 먹지 말라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에서 피를 철저히 제거해서 정결케 한 후에 먹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살이가 목 안으로 날아 들어가면 행여나 하루살이를 피 채 먹게 될까봐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이들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갈대아어를 썼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일상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는 학자들만의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율법을 직접 읽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복하여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교훈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는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단순히 육적인 관점으로 가르친 데 반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뜻, 곧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행동보다는 마음의 중심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은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더러운 채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는데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떤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육신적 안목대로 해석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기는 커녕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여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의에 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0-14)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육신적으로, 즉 외형적 행위의 문제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5:21)

예수님은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살인은 억제되지 않은 무모한 분노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분노의 감정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미운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이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 즉 미움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대하여 ‘라가’(헛된 녀석)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5:23-24)

기하학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하학의 원리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나 하나님께 가는 최단거리는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들을 만한 형제가 있는지 살펴보며 돌아가는 길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회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5:25-26)

여기서 옥이라 하면 옛날에 빚진 사람들이 가던 감옥, 즉 채무자 감옥(debtor's prison)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5:27-28)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간음은 안했으니 떳떳하다고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살펴보면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참 뜻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써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5:29-30)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쪽 눈으로만 범죄할 수가 있었습니까? 만일 오른쪽 눈을 빼내야 한다면 왼쪽 눈도 빼내야 합니다. 오른손이 소매치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오른손만 잘라야 합니까? 두 발과 왼손도 거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눈을 뽑아 내고 손을 자르는 끔찍한 무서운 예를 드신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최대의 소망임이 거듭해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지가 온전한 것보다, 두 눈이 다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 어떠한 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5:31-32)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권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할 수 있었으나 여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도 그렇듯이 법해석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에 대한 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학파들의 양대산맥 중 하나였던 힐렐(Hillel)은 이혼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경우는 그녀가 처녀로 시집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샴마이(Shammai)라는 다른 랍비학파는 이혼법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이를 테면 아내의 요리 방법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생각컨대 이러한 이유로 고전적인 지참금제도가 대중화되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지참금제도는 남편이 아내에게 미리 지급하는 별거수당이었습니다. 이것을 결혼 전에 신부의 아버지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리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혼이 다반사인 사회에서는 여성을 보호해 주는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이혼법 해석이 만연하던 당시의 사회현상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문제가 자세히 다루어져 있으므로 그 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5:33-37)

마음속으로는 ‘아니오’ 하는데 말로는 ‘예’ 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하는 행위를 예수께서는 ‘기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를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로 부터 진실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강도 높은 맹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일은 ‘예’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면 되는데 말끝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렇게 한다면 기쁘겠지만...’이라든가 ‘형제여,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만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5:38)

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율법은 일반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각 개인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질없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명예까지 들먹이며 우리 가족이, 우리 단체가, 우리 민족이 상대방에게 당한 피해를 동일한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는 이로 대응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5:39)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5:40 -41)

당시의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히브리인에게 그들의 짐을 2Km 정도까지는 운반할 수 있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와 그 정부를 중오했으며 끝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로마의 이 법을 혐오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가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5리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한 로마 군인이 10리까지 동행해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안이 병병해질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5:42-45)

태양과 비 같은 자연의 혜택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없이 주십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악인에게 잘 대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정도의 율법이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우리들은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며, 또한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5:46-47)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나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불신자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들만큼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랑,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48절의 말씀을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5:48)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며 온전하려고 해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6장을 공부하기 전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은 그분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7).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24절).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서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골 2:9)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여 졌다, 또는 온전하여 졌다’는 말에는 본문의 온전하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의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 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이며 율법은 영적인 것이므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며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외적인 측면만 보고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를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